

2/2(수) 레위기 14-16장 속죄(cover)

대제사장은 매년 일곱째 달 십일 <속죄일>에 자신과 가족들,
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의 규례를 행합니다(16:11,17,24).
제사장과 백성들은 경외와 엄숙함으로 이날을 지켜야 합니다(16:1, 30, 23:26-32).

속죄일 규정을 진행하려면 제사장과 제사법이 필요합니다.
그 내용들이 레위기 전반부인 <1-15장>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
속죄일을 통해 정비된 회중들은(16장) 거룩한 삶으로 부름 받는데,
그 내용들이 후반부인 <17-26장>에 기록되어 있습니다(성결법전).
이렇듯 16장은 레위기의 중심이며 핵심입니다.

레위기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, <죄>를 다룹니다.
죄는 행위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영역(생각, 마음)까지를 포함합니다.
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며, 레위기는 그 방법으로 <속죄cover>를 제시합니다.
즉, 희생 제물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<덮는> 것입니다.

“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
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
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(17:11).”
하나님은 희생제물의 피(생명)로 백성들의 죄(죽음)를 사하십니다.
제거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(시103:12).

<속죄일>은 유대인 월력 중 가장 중요한 날로 꼽힙니다.
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금식, 절제, 회개와 기도로 하루를 보냅니다.
아사셀 염소는 진영 밖 광야로 내보냈고, 후대에는 아예 절벽에서 던졌습니다.
공동체에서 죄를 완전히 몰아내고 끊어내고자 한 것입니다.

신약에서 예수님은 속죄일의 의도를 온전히 성취하십니다.
유월절 어린양이자(출12:46, 요19:14,36, 고전 5:7)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은(히7:26-28)
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늘 성소의 속죄 의식을 완성하셨습니다(히9:11-28).

나는 죄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까?

- ① 내 죄로 인해 예수님이 성문 밖, 십자가에 던져졌음을 깨닫습니까?
- ②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덮어 <속죄cover>하셨음을 믿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레위기 14-16장